



대한신경외과학회
www.neurosurgery.or.kr

대한신경외과학회

소식

Vol. 24

CONTENTS

02 인사말 04 임원명단 05 학회소식 및 회무보고 09 병원소식 11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13 회원동정 14 A letter from Turkey 16 Photo Report

발행인: 이규성 / 편집인: 임영진·홍승철 / 발행처: 대한신경외과학회 100-130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51 포스코 the# 오피스 B동 402호 / TEL: 02-525-7552~3 FAX: 02-525-7554
발행일: 2011년 4월 14일 / 제작: (주)엠엘커뮤니케이션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동 12-15 / TEL: 02-717-5511 FAX: 02-717-5515 / E-mail: ml@smileml.com Web: www.smileml.com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2011년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제29차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하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유달리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 봄입니다.

이번 제29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국제비즈니스 인프라를 가진 뛰어난 접근성과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는 도시, 인천 송도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To the world, to the future"란 슬로건 아래 우리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의 결집된 열의를 바탕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우리 주변의 산적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이겨나감, 우리주변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알찬 학술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예로 학술대회 workshop에서 전공의 수련, 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점, 우리 주변의 현재와 미래의 의료환경에 관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 등을 다루며 초청강연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이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종합 생명공학회사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을 모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회원님들의 안목을 높이고, 지식을 넓힐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 석학이신 5명의 초청연사를 통해 앞서가는 새로운 세계적인 지식을 접할 Special Lectures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학회 처음으로 모든 선, 후배회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지식을 나눌 "Golden Bell"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그 어느 학술대회보다 많은 회원님들이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최신 지식을 나누고 견문을 넓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이며 회원들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내의 산적한 어려운 정치, 외교문제와 더불어 이집트, 리비아 등 북아프리카 변혁 등으로 인한 세계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국내 금융, 경제시장의 불안정이 여전하여 앞날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신경외과학회는 2013년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유치 및 학술지의 국제적 인지도 격상 등 학문적으로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자만하거나 안주하기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감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무장하여 미래에는 더욱더 환자와 회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학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급변하는 내, 외의 변화를 원동력으로 삼아 창의력을 발휘하여 학회의 새로운 성장 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때 입니다.

회원 모두의 뜨거운 관심과 큰 격려 속에 새로운 시작의 봄날,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자 국제적 명소 인천 송도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들이 그간에 이룩하였던 학술적 업적, 성과, 진보에 대한 발표와 토론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하는 2011년 제29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이 신경 써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학회 이사장님, 학술이사님, 총무이사님, 모든 임원님 그리고 전문 분과학회 회장님 및 임원님, 특히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강원-제주지회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제29차 춘계학술대회는 본 대한신경외과학회가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초석이 될 기초를 다진다는 큰 의미를 가지는 회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의 잔치입니다.

학회 기간 내내 한 분의 회원님도 빠짐없이 참여하시어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가 성공적인 학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29차 춘계학술대회가 대한신경외과학회의 회원, 전공의, 간호회원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변화와 큰 희망을 드리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진지하게 다양한 분야에 매진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건투와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이 상 원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이 규 성

임원명단 (2010~2011)



명예회장 및 고문

명예회장 임광세, 문태준, 송진언, 이인수, 김윤범, 정환영, 주정화, 최길수, 송두호, 양승렬, 정광진, 김두원, 이기찬, 이화봉, 이영우, 정상석, 최택영, 이규창, 김승래, 이재혁, 최창락, 유태진

고문 황도윤, 한대희, 이정청, 김영수, 김국기, 조병규, 조수호, 강준기, 변박장, 김 윤, 김형동, 김문찬, 최중언, 강삼석, 정희원, 임만민, 박상근, 윤일규

대한신경외과학 연구재단 임원

이사장 변박장
이사 김문찬, 강삼석, 최선길, 김형동, 정희원, 오석전, 박연목, 백민우, 이규성, 송시현
감사 임영진, 정용구

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

회장 이상원 **이사장** 이규성
차기회장 김수환 **차기이사장** 정용구
상임이사 총무-임영진, 학술-신용삼, 고시-김태영, 수련교육-정천기, 기획-홍용길, 재무-장진우, 보훈-박현선, 진료심의-김오룡, 법제윤리-김상진, 홍보-홍승철, 국제교류-정용구, 회원관리-정 신, 전산정보-김영백, 의료정책-강재규, 개원의-김문찬, 특별-강동기, 권도훈, 송근성, 송시현, 이경진, 이부설, 이 언, 최천식

별정직 학술지편집-박정음, 교과서편찬-김영준, 학회사편찬-황성남
특별위원회 정책자문-박상근, 회칙개정-정용태, 2013세계학회조직-정희원
감사 이상형, 정진명
이사 강동기, 강성돈, 강재규, 강창규, 고도일, 고삼규, 고영초, 고 용, 고현승, 권도훈, 권창영, 김강현, 김기욱, 김문찬, 김상진, 김성호, 김수환, 김영백, 김영준, 김오룡, 김우경, 김인수, 김재휴, 김주승, 김창진, 김태영, 김한규, 박 관, 박관호, 박상근, 박세혁, 박윤관, 박정음, 박준근, 박현선, 배학근, 변진수, 서의교, 성주경, 송관영, 송근성, 송시현, 송준석, 신용삼, 심찬식, 왕규창, 윤수환, 이경진, 이규성, 이부설, 이상구, 이상원, 이선일, 이승명, 이 언, 이용성, 임영진, 장용규, 장진우, 정 남,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의화, 정천기, 정희원, 조정기, 조규용, 조창원, 주진양, 차승현, 최기환, 최낙원, 최세환, 최창화, 최천식, 최하영, 하호균, 한중우, 홍승관, 홍승철, 홍용길, 황성남 (83명)

상설위원회(상임이사)

총무위원회 임영진(위원장), 배학근(부위원장), 강성돈, 권택현, 김부성, 김승기, 김은상, 김인수, 박문선, 박봉진, 윤수환, 이승명, 정진환, 진동규, 김승범(간사)

학술위원회 신용삼(위원장), 김광년(부위원장), 고도일, 고준석, 공두식, 김승민, 김정은, 류경식, 박용숙, 서의교, 안재성, 이형중, 주성필, 최병관, 강석구(간사)

고시위원회 김태영(위원장), 권오기, 김근수, 김성민, 김세훈, 김재민, 김태선, 나영진, 민경수, 박익성, 백선하, 이선일, 이영배, 장재철, 차승현, 허 룡, 황 금, 황정현, 김대원(간사)

수련교육위원회 정천기(위원장), 고 용, 김병태, 김정훈, 문창택, 이정일, 이재혁, 이호국, 전신수, 조용은, 최하영

[연수소위원회] 강희인, 권오기, 김선환, 성재훈, 유 현, 최석근, 황선철

기획위원회 홍용길(위원장), 이일우(부위원장), 고영초, 권오기, 박세혁, 박준근, 변진수, 이상구, 조우진, 한성록, 양승호(간사)

재무위원회 장진우(위원장), 정현호(부위원장)

보험위원회 박현선(위원장), 이종우(부위원장), 강동기, 고준석, 김광년, 김주승, 박진규, 박준근, 서보라, 심기범, 이영배, 이정일, 정용태, 조용은, 김재훈(간사)

[중앙위원회] 고 용, 김근수, 박봉진, 성재훈, 허 룡

진료심의위원회 김오룡(위원장), 최기환(부위원장), 김동호, 김중규, 김재휴, 박 관, 박윤관, 백광홍, 염진영, 오창완, 이경석, 이승훈, 장철훈, 전상룡, 최창화, 현동근, 조원호(간사)

법제윤리위원회 김상진(위원장), 김성호, 박승원, 성주경, 손문준, 신동규, 신동아, 임재원, 임좌혁, 조기홍, 신현철(간사)

홍보위원회 홍승철(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고은정, 김성림, 심숙영, 양국희, 이관성, 조 준, 한영민, 허필우, 황성남, 이선호(간사)

국제교류위원회 정용구(위원장), 김우경(부위원장), 김동호, 김중규, 김창기, 손병철, 임동준

회원관리위원회 정 신(위원장), 김은영(부위원장), 김민수, 김세혁, 김영규, 김재휴, 김현우, 은종필, 이기택, 조규용, 조창원, 강신혁(간사)

전산정보위원회 김영백(위원장), 안영환(부위원장), 김상우, 김석원, 박종태, 유 현, 이상구, 최석민, 한정호, 남택균(간사)

의료정책위원회 강재규(위원장), 김기욱(부위원장), 고현승, 김대현, 김인영, 문성근, 조태형, 한동석, 문재곤(간사)

개원의위원회 김문찬(위원장), 강원봉, 김진호, 도병룡, 박권희, 박진규, 양승민, 임종현, 정창오, 한동석(간사)

별정직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 박정음(위원장), 권택현, 김영규, 김영백, 김철진, 문창택, 박세혁, 류경식, 송근성, 심기범, 오창완, 윤수환, 이부설, 이선일, 정진기, 주진양, 최기환, 최하영, 김상대(간사)

교과서편찬위원회 김영준(위원장), 강석구, 강신혁, 공두식, 김대원, 김동석, 김병태, 김성민, 김성호, 김세훈, 김영백, 김영진, 김일만, 김종현, 김중효, 박용숙, 서의교, 유도성, 이상원, 이승환, 이영배, 임동준, 장인복, 장철훈, 장호열, 전형준, 정 신, 정재훈, 정태영, 차승현, 허 룡, 현동근, 홍석호, 이형중(간사)

학회사편찬위원회 황성남(위원장), 김동석, 김세훈, 문창택, 박석규, 박승원, 유 현, 이호국, 주진양, 황선철, 남택균(간사)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박상근(위원장), 강동기, 강재규, 고도일, 박봉진, 박현선, 이상형, 임영진, 장일태, 최낙원, 최세환

2013 세계학회조직위원회 정희원(위원장, 2013WFNS 회장), 고영초, 고 용, 김우경, 김동호, 김문찬, 김수환, 김영백, 김오룡, 김재민, 김재휴, 김주승, 김창진, 김태성, 김태영, 박 관, 박정음, 박준근, 배학근, 백광홍, 백민우, 송시현, 여형태, 오석전, 오세문, 오창완, 윤도훈, 이경석, 이규성, 이상원, 이상호, 이승훈, 이 언, 이일우, 이재수, 이정교, 임만민, 임영진, 장진우, 전신수, 정 신, 정용구, 정용태, 정천기, 조정기, 최낙원, 최중언, 최창화, 최하영, 최후진, 한대희, 한중우, 함인석, 허승근, 허 철, 황성남

총무간사 김정은, 윤영철, 이상형, 장종희
재무간사 임동준, 황정현
학술간사 공두식, 박철기
회칙개정위원회 정용태(위원장), 이정일(부위원장), 고현승, 김성호, 성재훈, 안영환, 이상원, 이정길, 조용준, 홍석호

분과학회

장위기능신경외과학회 장진우(회장), 허 룡(총무), 최하영(학술) (2011.03~2012.03)
뇌종양학회 정용구(회장), 김중현(총무), 이창훈(학술) (2010.07~2011.06)
뇌혈관외과학회 주진양(회장), 허필우(총무), 박현선(학술) (2011.02~2012.02)
소아신경외과학회 왕규창(회장), 문재곤(총무), 전신수(학술) (2010.05~2011.05)
척추신경외과학회 김영백(회장), 도재원(총무), 박윤관(학술) (2010.09~2011.09)
신경손상학회 강동기(회장), 황 금(총무), 현동근(학술) (2010.06~2011.06)
뇌혈관내수술학회 신용삼(회장), 권오기(총무), 유도성(학술) (2009.12~2011.12)
노인신경외과학회 최창화(회장), 김성호(총무), 박정음(학술) (2011.02~2012.02)
신경통증학회 김상진(회장), 윤영설(총무), 김형일(학술) (2010.04~2012.04)
말초신경학회 김재휴(회장), 조용준(총무), 김대현(학술) (2010.11~2011.11)

지회

서울·경인지회 최천식(회장), 정영섭(총무) (2011.03~2012.03)
대구·경북지회 고삼규(회장), 김인수(총무) (2011.01~2012.01)
부산·울산·경남지회 한중우(회장), 황수현(총무) (2011.01~2011.12)
대전·충청지회 배학근(회장), 윤석만(총무) (2011.01~2011.12)
호남지회 정 남(회장), 공태식(총무) (2011.03~2012.03)

파견대의원 및 대표

대한의학회 평의원 이규성
대한의사회 대의원 이규성, 정용구(교체평의원)
대한병원협회 신임위원 이규성, 정천기(교체신임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규성, 이상원, 정용구, 신용삼
세계신경외과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음
아시아태평양학회 대의원 한대희, 김문찬, 최중언, 오석전, 이규성, 박정음
간호학회 병원 간호사위원회 변박장

2011년 학회 Desk Calendar 제작

2011년도 학회 Desk Calendar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우송하였다. 학회 Desk Calendar에는 2011년도 국내외 신경외과 관련 주요 학술대회 일정, 대한신경외과학회 중요행사 일정 및 학회 관련 기관의 연락처(대한신경외과학회 임원과 사무국 연락처, 각 분과학회, 지회 연락처 및 수련병원 안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간단한 메모를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2010년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자 명단

2010년 10월 14일(목)에서 16일(토)까지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50차 추계학술대회에서 9개 부문 영예의 학술상 수상자들이 결정되었다.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1.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상 (전체)

김승기, 조병규, 피지훈, 이지연, 채종희, 김기중, 황용승, 김인원, 이동수, 이종엽, 왕규창 (서울대)

Pediatric moyamoya disease: an analysis of 410 consecutive cases

2. 이현재 학술상 (혈관)

강동훈, 박재찬, 박성현, 김용선, 황성규, 함인석 (경북대)

Early Ventriculoperitoneal Shunt Placement after Severe Aneurysmal Subarachnoid Hemorrhage: Role of Intraventricular Hemorrhage and Shunt Function

3. 이주걸 학술상 (기초)

고은정, 김한나, 티안제 마, 최하영, 곽용근 (전북대)

Comparative analysis of serum proteomes of moyamoya disease and normal controls

4. 우정현 학술상 (전체)

김문규, 곽대순, 전신수, 박춘근, 오세문, 이상원, 한승호 (울산대학교 강릉아산병원)

Changes in Abdominal Vascular Tension Associated with Various Leg Positions in the Anterior Lumbar Approach -Cadaver Study-

5. 이인수 학술상 (Young Neurosurgeon)

문홍주, 조 훈, 권택현, 최혜경, 박윤관, 김주한 (고려대 구로병원)

Notochordal Cells Influence Gene Express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of Annulus Fibrosus Cells in Proinflammatory Cytokines Stimulation

6. 가톨릭 인봉상(전체)

김화정, 이재호, 김세혁 (아주대)

Therapeutic effects of human mesenchymal stem cells on traumatic brain injury in rats: secretion of neurotrophic factors and inhibition of apoptosis

7. 심보성 학술상 (중양)

정태영, 정 신, 최재은, 문경섭, 김인영, 강삼석 (화순전남대)

Adult craniopharyngiomas: surgical results with a special focus on endocrinological outcomes and recurrence according to pituitary stalk preservation

8. 정환영 학술상 (척추)

한인호, 진동규, 구성욱, 김근수, 진병호, 윤영설, 조용은 (부산대)

Magnetic resonance imaging findings of subsequent fractures after vertebroplasty

9. 임연 학술상 (전체)

공두식, 이정일, 김중현, 김태성, 김원석, 서연림, 동승명, 남도현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Phase II trial of low-dose continuous (metronomic) treatment of temozolomide for recurrent glioblastoma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 플래티늄카드 사용에 따른 학회 발전기금 적립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미 하나은행과 하나비자 플래티늄카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하여 플래티늄카드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대한신경외과학회 로고를 포함시켜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카드를 발급하였다. 이 카드는 계약 당시 회원들의 카드 이용 금액의 0.2%를 별도 적립하여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발전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신경외과학회-하나은행 제휴카드 2010년 사용액에 대한 학회 발전기금 13,212,233원이 2011년 3월 4일 학회로 입금되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사용실적에 따라 학회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회

2010년 10월 13일(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임원선출
 - 1) 차기이사장 선출(2012~2014): 고려대 정용구 교수
 - 2) 차기회장 선출(2011~2012): 전남대 김수한 교수
- 2011년도 신규 수련병원(전공의) 인정에 관한 의결(3개병원)
 - 강원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제주한라병원: 3개병원 모두 인정되지 않음.
- 결산보고 및 예산안 승인 건
- 회계연도 결산(2009.10~2010.9) 보고 및 예산(2010.10~2011.9)안 승인 함
- 임원 인준에 관한 건
 - 1) 명예회장 유태전 (1996~97년도 회장, 1940.8.12) 인준
 - 2) 신입이사 인준 건
 - 정용구, 왕규창, 강동기, 김상진, 김영백, 서의교, 고현승, 김기욱, 차승헌, 박현선, 이선일, 정천기, 박윤관, 장진우, 심찬식

2011년 1월 20일(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 명단 추천 및 인준
- 신입이사 인준
 - 박관호, 강창규, 장응규, 김재휴, 고삼규, 한중우, 박춘근(일스), 최세환
- 각 위원회 위원 위촉장 발송
 - 위촉장은 공문 형식으로 발송 하기로 함
- 조례수정 건
 - 조례 개정에 대한 투표
 - 1)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기준: '이사회의 의결'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로 변경
 - 2)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선임에 관한 기본원칙: '1개 대학(수련병원)에서 상임이사 1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역별, 대학별 균형을 유지한다'로 변경

상임이사 및 임원 회의

2010년 10월 13일(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명예회장 선출: 유태전(1996~97년도 회장, 1940.8.12)
- 명예회장 선출기준 조례 수정: '추계학술대회 기간'을 '춘·추계학술대회 기간'으로 수정
- 대한의학회 회원 인준 심사
 - 1)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의견없음
 - 2)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는 반대
 - 3)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는 찬성
- 서초동(구 학회) 회관을 연구재단으로 소유권(명의) 이전 하기로 함

2010년 11월 26일(학회회관 대회의실)

- 대한의학회 외과 세부전문의 제도 인준 신청에 따른 학회 의견에 관한 사항
 - 외과의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하여 본 학회는 원칙적으로 동의 그러나 세부전문의 제도가 너무 세분화되어 시행되는 것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외과 전문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또한 타과와 영역이 겹치는 분야인 유방, 복강경 그리고 혈관 분야는 관련 과간 의견 조율이 필요 함. 이와 같은 과정은 세부전문 의 제도의 도입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생각된다고 학회 의견을 제시함
- 2011년도 초청연자 선정은 장기적 계획을 통하여 선정하기로 함.
- 2011년 전공의 정원 추가심의 총원에 대하여

- 강원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학회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재심 신청을 요청함.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자체조사 및 학회의견을 감안 후 강원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에 각각 1명씩의 신규 정원을 인정. 복지부 최종의견 또한 승인으로 결정되어 강원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각각 1명의 신규 정원을 인정 됨. 학회 이사회 차원의 제제를 결정함.

2010년 12월 17일(학회회관 대회의실)

- 대한외상학회 세부전문의 현황에 관하여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회 차원의 거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료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대한척추수상학회와 관련하여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에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신경외과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2011년 1월 20일(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각 위원회 위원 위촉장 발송
 - 위촉장은 공문 형식으로 발송 하기로 함
- 조례수정 건
 - 조례 개정에 대한 투표
 - 1) 학술대회 개최지 선정기준: '이사회의 의결'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로 변경
 - 2) 이사장이 임명하는 임원선임에 관한 기본원칙: '1개 대학(수련병원)에서 상임이사 1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지역별, 대학별 균형을 유지한다'로 변경

2011년 2월 11일(학회회관 대회의실)

- 자동차 보험수가 체계 개선에 대하여 학회에서는 일원화에 반대하는 의견임

2011년 3월 11일(학회회관 대회의실)

- 사무국 직원 채용에 관한 건
 - 직원 1인이 신경외과 재단 사무원으로 전직하여 1명 필요하여 면접 후 채용
- 연회비 납부에 관하여 좀 더 회의를 거친 후 결정하기로 함
- 대한신경외과학회지 논문상 상금 인상은 추후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결정함
- News letter는 종전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결정함
-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각 위원회 중요 활동 사항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 (2011. 1. 28)
 -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 프로그램 보고 및 검토
 - 학술대회 버스 선정 및 배치
 - 토요일 회원 참여 독려 방안 논의
- 공정경쟁규약 관련 회원학회 설명회 참석
 - 일시: 2011년 3월 8일(화) 오후 4시 장소: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
- 개정된 공정경쟁규약 세부사항 및 학술대회 지원에 대하여 학회보고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국내 학술대회 지원금 수령 (수령액: 52,500,000 원)
- 2011년 제51차 춘계학술대회 준비 및 운영
 - 학회장소(송도 컨벤시아) 사전 답사 2회 시행
 - 총무-학술 합동 위원회(춘계학회 준비위원회) 개최: 골든벨 상품확정, 전자제 시행확정, 운동 공식 프로그램에서 제외확정.

고시위원회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필요서류 마감 - 2010년 10월 22일(금)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서류 심사 - 2010년 11월11일(목), 학회사무실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사신문제선정 및 출제 작업
- 2010년 11월 24일(수)-26일(금), 학회사무실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사신문제집 인쇄 작업
- 2010년 12월 13일(월), 16일(목)
- 대한인쇄소 : 고시이사, 고시간사 감독 및 최종 검증
- 문제은행 전산화작업 3,860 문제 입력 완료,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2011년 1월)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1차) 선택작업
- 2011년 1월 9일(일) - 13일(목), 양평한화콘도
- 160문제(주관식 40, 객관식 120)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1차) 시행
- 2011년 1월 13일(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1002호, 1003호
- 감독위원 6명, 고시이사, 간사, 관할 감독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사정회
- 2011년 1월 20일(목), 서울팔래스호텔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2차 수술시험) 시행
- 2011년 1월 21일(금)-22일(토),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 제54차 전문의 자격시험 2차 합격자 사정회
- 2011년 2월 8일(화), 서울팔래스호텔

수련교육위원회

- 준계학술대회 수련책임자 워크숍 구성 및 프로그램 확정
- 신입전공의 오리엔테이션 구성
- 일사: 2011년 4월 30일-5월 1일 - 장소: 천안 상록 리조트
- 전공의 연수교육 계획 수립 (장소 및 organizer 정함)
1차 8월 27-28일(토-일), 건국대학교
2차 10월 1-2일(토-일), 충북대학교
3차 10월 22-23일(토-일), 서울성모병원
4차 11월 5-6일(토-일), 충북대학교

정책 자문위원회 및 의료정책위원회

- 대한의사협회 의견회신
- 민주노동당 과정보의원
지역 병상할당제 의견: 현 우리나라 보건의료제 도하에서는 불가 의견
- 신한국당 유재중의원
DUR 제도 도입: 도입시까지 시간적 준비
- 대한외상학회 세부 전문의 제도
- 신경손상학회에서(강동희회장) 대한외상학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함.
참고: 전북대 은종필 교수께서 제시한 대한외상학회 세부 전문의 신경외과 증원을 건의
- 현재 정부에서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 임.
- 학회 차원에서 외상 전문의 자격취득을 정책적으로 증원 요청이 바람직 함.
- 합격한 10명 회원 외 현재 활동 중인 평의원을 회원으로 인정을 요구하여 2명 추가
- 향후 2차 세부전문의 모집시 다수가 합격하도록 각 대 학 병원에 할당하는 방안
- 향후 설립될 권역중증외상센터에서 신경외과 중증 환자를 진료와 처치 범위
- 외국인 국내 전임의 의료행위에 대한 의견조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자문(유선 문의)
현재는 불가함.
- 2011년 1차 뇌사판정기준 소위원회 회의 결과

- 2011년 6월 시행예정으로 법 제53조(과태료) 조항
뇌사추정환자 신고의무화
2회 이상시 의료기관장에게 100만원 과태료 부과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및 정부에 건의
법령 개정 추진
- 대한신경외과 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후 워크숍 진행
2011년 1월 4일(화요일) 학회사무실
1) 학회 학술대회 발전 방안: 17
2) 신경외과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 및 처우개선에 대한 건: 19
3) 신경외과행위 및 분야 확대에 관한 건: 3
4) 보험관련 업무: 10
5) 타 기관이나 학회와의 유대에 관한 대외활동에 관한 건: 4
6) 대국민 신경외과 홍보에 관한 건: 4
7) 학회: 13
8) 기타: 6
-학술과 수련분야는 각 상임이사에게 위임하여 지속적으로 개선
-보험 분야는 2011년도 워크숍 등 지속적으로 개선과 관계기관에 건의

편집위원회

- 지난 3개월간 학회지 발간 지연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11년 3월호 부터 정상적인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월호 부터는 2주일간 출간일이 빨라져 매월 말일 내로 발간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3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4년차 논문 접수 마감은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2012년 전문의 시험응시 자격을 위한 4년차 논문접수 마감은 2011년 2월 28일 이었음)

교과서편찬위원회

- 교과서 편찬위원회 5차 회의: 2011. 4. 1 (금) 14시, 신경외과학회 사무실
- 교과서 집필의뢰현황 보고: 3월 31일 현재 전체 원고의 72%(112/156) 회신 형식, 분량, 내용에서 많은 수정이 필요
- 원고를 보내지 않은 집필진에게 독촉하여 원고 모집을 4월말까지 종결
- 5월말까지 분야별 책임위원이 원고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부분(분량 축소, 내용 수준 조정 등)을 지적하여 이를 집필진에게 재의뢰하여 마지막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
- 7월말까지 분과별 세부모임에서 직접 모여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당일 full day 회의
혹은 1박 2일 워크샵 형태로 조정회의
- 9월말까지 분과별로 교정이 완료된 원고를 집필진에게 재의뢰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10월 전체 교과서 편찬위원회 회의 (분과별 1-2명 참석) - 분과별 분량, 내용 수준 등을 일괄조정, 출판사 관계자, illustrator 등 배석하여 현장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 12월말까지 교과서 초고를 탈고하여 확인한 후 출판사에 맡기는 방안
-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요청사항
- 교과서 원고 조정 및 균형 작업을 위한 1박 2일 상당의 워크샵 2회 이상 필요
- 분과별 책임위원 주관으로 실무모임을 통한 원고교정 작업이 자주 필요함. 현실적인 학회지원 요망
- 일부 회원 및 제약회사 문의사항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뇌대사 및 뇌혈류개선훈, 향전간체 성분명칭 및 사용 방침 수록여부
- 새 교과서의 특징
-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 수준은 이전 3판과 유사
- 총 집필자: 156명 (이전 116명)
- 교과서 분량: 700 페이지 예상 (이전 620 페이지)
- 총 13 장(chapter): 기존 12장에 장애진단 부분을 추가
- 학생 및 전공의, 타 과 주치의, 법률 자문, 변호사, 간호사 등 구비하고 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신력 있고 확실한 내용만 수록하기로 함.

법제윤리위원회

- 2011년 3월 2일, 18:00, 학회회의실
- 참 석 법제윤리위원회 위원들과 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
- 내 용 회칙에 근거,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칙 및 규정에서 실제 현재 실행중 이지 않거나, 다르게 집행되는 부분, 개정되어야 할 부분, 회칙 및 개 정에서 자체내 모순이 있거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다른 내용 들을 점검하였음. 개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회칙개정위원회에 송부하 였음. 빨리 개정해야 할 부분과 시간을 갖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을 나눠서, 빨리 개정되어야 할 사안은 4월에 개최 될 이사회에서 반영 시키도록 함.

홍보위원회

- 2010-2011홍보 위원회 구성
 - 홍승철(위원장), 김재민(부위원장), 고은정, 김성림, 심숙영, 양국희, 이관성, 조 준, 한영민, 허필우, 황성남, 이선호(간사)
-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의료상담 답변의사 추천 협조요청
 - 2011년 1월 대한의사협회에서 학회로 네이버 답변의사 추가 신청 협조 요청
 - 홍보위원회내 의원 8명 추가 신청 및 활동 (주 7회, 월 30건 요청)
 - 현재도 답변의사 부족으로 추가 신청 가능, 네이버 답변의사 신청 요망.
- 대한신경외과학회 소식지 내용 수합하여 정리함.

회원관리위원회

- 신경외과학회 회원수첩 발간 예정

세계학회 조직위원회

- 제15차 세계신경외과학회 조직위원회 회무 보고
- 제29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
- 1. 준비회의
 - 운영위원회
 - 2011 WFNS Interim Meeting 관련 업무 협의
 - : Delegate Meeting 일정 조정, WFNS2013 홍보테이블 운영 등
 - 국내/외 업체에 발송할 후원프로그램 준비
 - 국내 주요 제약사 사장단 미팅, 후원 참여 안내
 - 학술위원회
 - WFNS 본부 Scientific Committee 및 회원 society에 학술 관련 제안 요청 서신 발송, 회신 관리
 - KNS 분과학회 대상 WFNS2013 학술프로그램 계획(안) 설명 및 학술 관련 각 분과 제안서 요청, 접수 중
 - 3개 전자 대회 프로그램 DB 화 작업 완료
- 2. Administrative Meeting (AC) 미팅 참석
 - '11. 2. 12 WFNS 본부 (스위스)에서 개최된 AC 미팅에 정회원 회장 참석
 - WFNS2013 준비 현황 보고 및 WFNS 본부 회의 참석
- 3. 기타 활동
 -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원 대상, 2011 WFNS Interim Meeting 참석 안내
 - 현재 회원 20여명 참석 예정
 - ACNS Journal 에 WFNS2013 광고 무상 게재
 - Prof. Kato 협조
 - 2011년 5월 개최 예정인 '세계피부과학회' 참관 협조 요청
 - 운영 실무 임원 및 사무국 직원 학회 참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관한 학회의 의견 제출

2월 17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뇌사추정자 기준안'에 대한 의견 요청으로 학회와 손상학회의 의견을 제출 함 (2011. 2. 24)

학회의견: "우선 뇌사추정자에 대한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생명유린이다. 또한 의사 진료적 양심에 위배 된다. 만일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대 한의학회에서 제시한 뇌사판정기준에 준하여 신고자가 각 소속병원의 뇌사 판정위원회에 신고 후 각 병원의 뇌사판정위원회가 국가에 신고해야 한다."

3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4호, 2010. 5. 31 전부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으로 학회의 의견을 보건복지부로 제 출 함 (2011. 4. 8)

학회의견: 장기법은 제2조에 기본이념을 명시하는 바와 같이 인도적 정신으 로, 장기 기증의 의사는 자발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구득 희망자가 많고 장기공여자가 적다고 하여 장기기증의 동법 제 17조와 제 53조 에서와 같이 "뇌사추정자의 신고를 강제로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규 정하고 있어 이는 현행의료법, 형법 및 각종 규정과도 대치되는 위헌적 소지 를 충분히 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바이며, 이를 시행 시 의료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 명확한바 다시 한번 빠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장기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어서 시정사항요구
- 1.1) 개정규칙 제 10조 1항(뇌사의 조사절차 등) "뇌사조사를 할 수 있는 전 문사에는 신경과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를 "신경과나 신 경외과의사가 1인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 2) 동 개정된 시행령 제 17조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등) 1항에 "교원"은 삭제와 동 2항에 "신경과 전문의"를 "신경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로 변 경을 요구합니다.
- 2. 과태료의 부과
 - 장기법 제 17조 1항 위반과 따른 동법 제 53조 제 2항 제 2호에 따른 시 행령 26조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 3. 뇌사추정자의 기준
 - 장기법 제17조의 4항, 동 시행규칙 제 9조의 2항에 따른 뇌사추정자의 기준은 본 학회에서 밝힌바 대로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대로 시 행 시에는 의료현장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니 하루 빨리 유관학 회와 합의 하에 개정되어야 합니다.

4월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여부를 확정한다고 본 학회에 의견을 요청함 (의견제출기간 4월 22일)

입법예고 의견 회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 2011. 3. 23. ~ 2011. 4. 12.)

의견제출처	개 정 안	제 출 의 건	조 치 결 과
대한신경 외과학회	뇌사판정위원회 위원 중 신경과의 의사 1인이상 포함 사가 1인이상 포함 되어야함	신경과나 신경외과 의사 1인이상 포함 되어야 함	※ 반영
	뇌사추정자 미신 고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서 삭제	※ 수정반영 - 개정 법률에 따라 규정 된 것으로 삭제는 어려움 - 현장의 신경외과 의사 들의 협력이 필수적이 므로 1년동안 과태료 부 과 유예조치

입법예고 의견 회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기간 : 2011. 3. 23. ~ 2011. 4. 12.)

의견제출처	개 정 안	제 출 의 건	조 치 결 과
대한신경 외과학회	뇌사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의사는 신경과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함	신경과나 신경외 과의사 1인이상 포 함되어야 함	※ 미반영 - 신경외과의사의 뇌사 조사를 제한하는 것 아니며, 신경과의사를 포함토록 한 것은 뇌사 조사시 필수적인 뇌파 검사 판독을 신경과의 사가 하기 때문
	뇌사추정자 기준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가 3으로 지 속되는 경우 -2개 이상의 뇌간 반사가 없는 경우	기준이 불명확하여 현장 혼란 우려	※ 논의 후 결정

병원소식

가톨릭의대

• 5th Catholic Conference for Update in Neurosurgery; Glioma Update
신경외과학교실은 지난 2월 19일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약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th Catholic Conference for Update in Neurosurgery; Glioma Update'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박준근 주임교수의 환영사와 의대학장 김진 교수의 축사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다섯번째 개최하는 심포지엄이었다. 금년에는 신경종양학을 소분야로 세분하고 국내외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임상연구자 및 기초학자들을 초청하였으며 본 가톨릭대학의 신경종양학 전문교원들도 연자로서 함께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최근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뇌종양 연구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치료방법과 임상경험 및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신경외과학 교실에서는 이와 같은 Neurosurgery Update를 매년 개최하여 신경외과 각 분야의 최신지견을 국내에 보급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신경외과 이일우 교수가 2011년 1월 1일 제8대 한국 조직공학 재생의학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국 조직공학 재생의학회는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병들을 첨단 생명공학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인공장기, 줄기세포, 생체재료, 나노바이오 테크놀로지 등을 포함하는 의학, 생물학, 공학, 약학 등 다학제간의 융합 연구를 위한 학회이다. 1999년 창립된 한국 조직공학 재생의학회는 비교적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세계대회를 유치하여 전세계 50개국에서 2,000명이 넘는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학회의 공식학술지인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 이 창간된 지 5년만인 2008년 SCI(E) 논문으로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2010년에는 Impact Factor 가 3.158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등 학문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와 대한의학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과 생명과학의 융합 학회로서의 임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일우 교수는 1999년부터 학회의 창립멤버로 참여하였으며 2009년 세계대회에서는 학술위원장을 역임하고 2010년에는 '재생의학'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그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취임인사에서 학회가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임상인사들을 더욱 많이 참여시켜 벤치에서의 연구결과가 실제 임상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중개연구를 장려하고 학생들과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신진연구자들의 학문적 발전을 지원하며 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1) 2010년 12월 18일 "전공의를 위한 신경해부학 강좌"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손익홀에서 전국의 전공의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994년 본 강좌가 개설될 당시 10명에서 시작했으나 16년 이상 지난 금번 강좌에는 많은 전공의들이 참석했다. 내용은 gross anatomy를 비롯한 수술해부학과 functional anatomy, 그리고 안-이비인후과 영역의 기능적 해부학분야까지 강좌가 진행되었다.

2)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학교실 신년하례식이 2011년 1월1일 중식당 "대가방"에서 개최되었다. 본 대학 초대 주임 교수님이신 이인수 교수님 이하 순천향의료원 4개 병원에서 교수, 전공의 및 졸업동문들이 한데 모여서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덕담을 주고 받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3) 2011년 1월 8일 본 교실 교수진의 가족 모임이 있었다. 화목한 분위기에서 식사 및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관람을 하였으며, 터키문화원(강남구 역삼동 소재)을 방문하여 터키 문화 체험을 하였다(사진).



4) 2011년 1월 14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경외과 송년회를 겸한 신년회 행사가 있었다. 교실원, 전공의 및 병동 간호사들과 함께 저녁식사, 장기자랑, 퀴즈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적이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따뜻한 자리였다.

5) 뇌혈관 및 뇌혈관내 수술 단기연수를 위해 터키 신경외과 의사 Dr. Ali (Pamukkale 대학교병원 전공의 5년차)가 2010년 11월 1일부터 3개월간 본원에서 근무하였다. 연수기간동안 뇌혈관조영 및 중재술 연수 및 각종 학회 참석 등 활발한 활동을 마치고 2011년 1월30일 귀국했다.

개인 회원 동정

1. 김범태교수는 2010년 11월 13일 건국대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신경중재치료의 학회에서 저술상을 수상하였다.
2. 신동성 전임강사가 2011년 3월 1일 부로 조교수로 승진 발령을 받아 근무를 시작하였다.
3. 김순권 전공의가 신경외과 전문의의 시험을 합격하여, 2011년 3월 1일 부로 전임의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영남대병원

• 영남대학교의료원 척추센터 개소 10주년 심포지엄

일사: 2010년 11월 20일(토) 10:00-17:40 장소: 영남대학교병원 1층 이산대강당

• 제15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연구회 심포지엄

2011 Recent Update in Brain and Spine Imaging

일사: 2011년 2월 12일(토) 13:00-18:00 장소: 영남대학교병원 1층 이산대강당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박상근(의료원장) - 4월 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39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훈장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박상근 의료원장의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공헌한 공로로 이뤄졌다.



분과학회 및 지회소식

서울경인지회

• 대한신경외과학회 서울-경인지회 제20차 정기학술대회

일시: 2011년 3월 12일(토) 9:00-18:30

장소: 건국대학교 의생명과학연구원 강당

▶ 주요프로그램

- 1) Special Lecture
 - Prof. Guoming Luan (Sanbo Brain Institute, China)
 - Prof. Shengde Bao (Peking University First Medical School, China)
- 2) Special Guest Lecture
 - 이태석 리더십을 말한다 (구수환, 한국방송공사)
- 3) Luncheon Seminar
 - Post-Traumatic Epilepsy (신원철,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 4) 심포지움
 - Theme : Recent Treatment of Malignant Glioma Updates on WHO grade III Glioma (조영현, 서울아산병원)
 - Current Status of Temozolomide Chemotherapy for Malignant Glioma (공두식, 삼성서울병원)
 - Fluorescence -Guided Surgery for High Grade Glioma (박철기, 서울대병원)
- 5) Up-to-date Informative Knowledge
 - Introduction : Endovascular Neurosurgery for Cerebral Aneurysms (권오기, 분당서울대병원)
- 6) 자유연제 : 4개세션 31연제

▶ 참석자 : 135명

-임원 개선 (2011-2012)

회장: 최천식, 부회장: 조기홍, 김주승, 총무: 정영섭, 학술: 김범태, 국제교류: 이정교, 회원관리: 전신수

- 강원, 제주 회원들도 서울-경인 지회에 합류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으로 더욱 확대된 이번 학술대회부터 참가하여 활발한 학술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되어 상호 활발한 친목 교류가 기대됩니다.



대한신경손상학회

2011년 1월 28일(금) 동계워크숍을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21일(토) 제 18회 대한신경손상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간호사 연수교육을 대구 인터볼고 호텔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 2011.1.30 제3차 통증 심포지움 (서울아산병원)
- 2011.3.19 제 17차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정기학술대회 (고대 안암 캠퍼스 하나스퀘어)
- 임원 개선 (2011. 3-2012. 3)
 - 회장: 장진우 (연세대), 총무: 허 룡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 보합: 이정일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감사: 김무성 (인제대 부산 백병원)
- 2010. 10 대한정위기능신경외과학회 홈페이지 개설
- 2010. 11. 8 정위기능신경외과학 교과서 출판기념회(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대한뇌종양학회

- 1) 대한뇌종양학회 제5회 동계학술대회를 2010년 1월 28일 용평리조트에서 약 2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함.
- 2) 2011년2월10일부터 11일까지 일본 홋카이도 Rusutsu 리조트에서 개최된 제 4차 국제 동계신경외과학회, 제27차 하쿠바 세미나 및 대한뇌종양학회의 공동 학술대회에 대한뇌종양학회 정용구 회장을 포함 회원 15명이 참석함.
- 3) 대한뇌종양학회 증례심담회를 2010년 11월5일 영남대병원, 2010년12월11일 해운대백병원, 2011년4월8일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각각 개최함.



「제4차 국제 동계신경외과학회를 다녀와서」

김충현 (대한뇌종양학회 총무이사, 한양대구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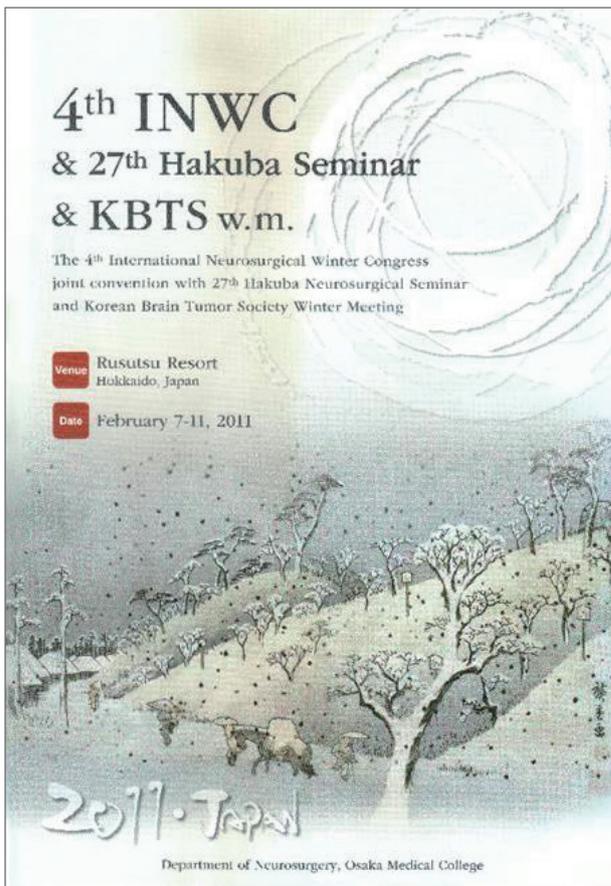
대한뇌종양학회에서는 2010년 7월 13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김창진 교수(울산대 아산병원)의 제안에 의하여 제4차 국제동계신경외과학회(4th INWC)와의 공동 학술대회를 가지기로 결정하고 4th INWC의 회장인 오사카 의과대학 신경외과의Toshihiko Kuroiwa교수와 합의하였다.

4th INWC의 공식학회일정은2011. 02. 07-11일까지였으나, 2011. 01. 28-29일까지 용평에서 가졌던 동계학술대회와 설 연휴를 감안하여 공동학회는 2011. 02. 10-11 까지만 참석하기로 하였다.

2011. 02. 10일 오후 12시 35분, 홋카이도의 치토세 공항에 도착하여 전날 도착해 있던 총무대 김동호, 김영규 교수와 만난 후 버스편으로 백설로 뒤덮인 산길을 따라 약 2시간만에 루스츠 리조트의 학회장에 시작 5분전에야 도착할 수 있었다. 고생스럽게 학회장에 도착하고 보니 학회 분위기는 생각보다 참여인원이 적었으며 대한뇌종양학회 회원들이 도착 후 오히려 학회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2011. 02. 10일 오후 세션에서 전임회장이신 조경기 교수(분당차병원), 회장 정용구 교수(고려대), 김창진 교수(울산대) 등 세분이 좌장, 중요강의나 연제를 발표하였다. 저녁 6:30분부터는 Crescent Hall에서 만찬회식을 가졌는데 어느 학술대회보다는 상당히 자유스런 분위기였으며 낮 시간 동안 가졌던 스키대회 후 시상식을 겸하고 있었다. 참가자는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전임회장(조경기 교수, 김태영 교수), 회장(정용구 교수), 총무이사(김충현 교수) 및 학술이사(이창훈 박사)를 포함하여 약 15분이 참가하여 일본인 참가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2011. 02. 11일 08:30-09:40까지의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김창진, 조경기 교수 이외에 김오룡(영남대), 김충현 교수(한양대), 박호신 선생님 (국립암센터), 심기범 교수(제주대)와 김민수 교수(영남대) 등이 발표를 하였으며 정용구 회장의 학회 요약 및 Kuroiwa교수의 폐회인사로 종료하였다.

끝으로, 복잡하고 산적한 업무를 제껴두고 대한뇌종양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선양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심한 독감 증임에도 불구하고 꼭두새벽에 지방에서 출발하여 참가하신 김태영 전임회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4차 국제 동계신경외과학회, 제27차 하쿠바 세미나 및 대한뇌종양학회의 공동학술대회」

장소: 일본, 홋카이도, Rusutsu 리조트

일시: 2011. 02. 10-12



보직변경

한영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원장 취임 (2011년 3월)
 성재훈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신경외과장 발령 (2011년 3월)
 •교수 진급(20011년 4월)
 조정기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부교수 진급(20011년 4월)
 김영우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부교수 진급(20011년 4월)
 양승호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부교수 진급(20011년 4월)

김재민 (한양대구리병원) 부원장 취임
 김중현 (한양대구리병원) 신경외과장 발령
 조성윤 (동아대병원) 임상강사 발령
 안상석 (동아대병원) 임상강사 발령
 김세혁 (아주대병원) 주임교수 취임 (2011. 03. 01)
 조진모 (아주대병원) 진료조교수 (2011. 03. 01)
 김호상 (양산부산대병원) 임상조교수 임용 (2011.03.01)
 하영수 (제천 명지병원) 병원장 취임
 조광욱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임상 조교수 임용
 이창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임상 강사 임용
 임정규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임상 강사 임용
 김성호 (영남대학교의료원) 사무국장 취임
 김상우 (영남대학교의료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취임
 정영진 (영남대학교의료원) 임상교수 발령
 김영규 (충북대) 의과대학장 취임 (2011.03.01)

근무지 변경

장세연 (서울의료원에서 한양대구리병원 전임의)

개원

김대조 (마린요양병원 개원) 2011. 02. 24
 김법영, 정재익 (김&정 해운대병원) 병원명 변경 (2011년 1월)
 김근욱 (기등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4번지 (T.031-418-8275)
 조성환 (조성환 신경외과의원)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7번지 → 교동 1881-6 조은빌딩으로 이전개원 (2010. 11. 15)

결혼

허준영 (순천향대 서울병원 R1)
 - 한국전력공사 본사 한빛홀 (2011. 03. 19 토요일 오후 3시)
 김병원 (영남대 R4)
 신태희 (영남대 R3)

해외연수

박형기(순천향대 서울병원) stanford, USA (2010.7-2011.12)
 김영돈(대구가톨릭대)
 - Division of Neurological Surgery, Barrow Neurological Institute
 - St. Joseph's Hospital and Medical Center, Phoenix, Arizona
 - 2009. 8. 1-2009. 12. 31: clinical observer of Robert F. Spetzler
 - 2010. 1. 1-2010. 12. 31: research fellow of NRC of BNI
 - Project name
 1) Quantitative anatomic study of tailored far-lateral approach for the VA-PICA regions
 2) Quantitative study of optico-carotid and carotid-oculomotor window for the interpeduncular fossa before and after ICA mobilization and P-COM division
 주원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 Univ. of Florida (USA) - 2009. 9-2011. 1 해외연수 후 귀국



A letter from Turkey: My endovascular neurosurgery training experience in Korea

Ali Yilmaz M.D. (Pamukale University, Danizli, Turkey)

터키의사 Dr. Ali가 단기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보내온 글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었고 우리나라와 터키 신경외과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김범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As growing up with the historical friendship and fellowship stories of Turkey and South Korea, I immediately accepted the offer when I was asked to work in South Korea at the same hospital with the South Korean brain surgeons. After that, I began to search on the internet about the South Korea and made the first contacts there. I was going to get 3-month endovascular education on the department of brain surgery at the University of Soonchunhyang in Bucheon near Seoul. Bum-Tae Kim was going to be my supervisor. The time was going by and my plane ticket was bought. After email traffic with Dr Kim, I began to pack my suitcases. Dr Shin was going to meet me at the airport there. And at last, with the flight announcement of Emirates my journey to Korea started from Istanbul airport.

After a long flight, I stepped off the plane at the Incheon airport and I had the chance of hearing Korean language for the first time there. The first word I learnt was 'kamsamnida'. The people were friendly and respectful and were smiling all the time. After I got my luggage, I saw Dr Shin at the exit door holding a card with my name on it. He was my fist Korean brother who helped me as far as he can during my 3-month stay there and I will be grateful to him forever. Then we set off to the hotel and on the way he began to tell me about Korea in English. After he accompanied me to my room, we visited the hospital together. That was my fist night and I slept till the morning.

While I was sleeping in my room, the phone rang. The receptionist was talking about something but I couldn't understand anything. Then I heard the voice of Dr Kim at the other end of the line. He told me to go to hospital. I was very excited to go to the hospital. I got up and got dressed quickly then set off for the hospital. That was my first working day. When I arrived, I was given two coats and I was getting hospital orientation education. I met lots of Korean healthcare professionals, but I couldn't bear their names in my mind. So I was so unhappy for that. Especially when I sometimes met the Korean friends who do not know English, I got more upset because I wanted to talk to them but that was impossible as they didn't know English. Although most of the conversations were in English, sometimes it was difficult to communicate. But with the bona fides of me and my Korean friends all the problems were solved as soon as possible. I was getting used to the Korean dishes and traditions day by day. Especially 'kimçi' was my favorite dish.

I came to understand the respect in Korean traditions and I could the sincere feeling of smiling people. I loved the Korean people so much that I felt so sorry on behalf of them when I saw the bad and rude people in the other countries, because they were making these warm-hearted people of that beautiful country feel unhappy. As the days went by, the dishes were not as different as the earliest days and they became my favorite tastes. I was adapting myself.

With the help and guide of my boss Dr Kim, I was studying hard endovascular education. I was reading the books and articles required for the basic knowledge and discussing with him about them. I began to watch DSAs. Dr Kim was teaching me the details. I began to do DSAs with Dr Shin and the Angio room wasn't different for me any longer. The staff were trying hard to make me feel at home. There were lots of embolization cases and I was keeping records in each case about the basic points in the Dr Kim's lectures. The time was going by fast. At the same I was attending the local scientific meeting and I was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the endovascular cases done across Korea. Dr Kim was trying hard for my education and enabling me to attend all the cases day and night. At the end of each case he made me write reports about what I learnt. The education program which is my aim for going there was going right and perfect.



뇌혈관동계집담회 참석후
왼쪽부터, 김범태 교수, 허필우교수, Dr. Ali, 신동성교수

At the clinical of spinal surgery there was Prof Won-Han Shin whom I called 'big shin' and whom I respected greatly. I admired him like the other clinical staff. He had great experiences and sincere behaviors. I had a chance to watch him during the spinal cases and he shared his knowledge with me sincerely. My friends working there as nurses were trying hard to help me understand the Korean traditional food and traditional behaviors of Korean people. I wasn't the visitor of brain surgery department any longer but one of them. I was having small conversations with the Korean words

I learnt. I felt that it was going to be difficult to leave there. But I was determined to go on my friendship with them forever. Of course it is hard to say the names of all my friends here. Their sincere behaviors really made me love Korea.

Unfortunately it was the time to say farewell to each other as my education program was over. I returned to my hometown and began to do the things about the endovascular surgery at my hospital. I will never forget the ones who have contributions to my education especially Dr Kim.

Now I regard myself as the voluntarily responsible person who will introduce the traditions,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my Korean friends here in my hometown.

Dr. Ali yilmaz

Department of Neurosurgery, Pamukkale University, Turkey

E-mail: dryilmazali@gmail.com

Photo Report



추계 강연장 모습 ←



→ 강의모습

The 29th Annual Spring Meeting of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 원로만찬 후 (2010년 10월 13일)



▲ 추계학회 만찬 공연

Photo Report



➔ 추계학회 상임이사회의 후



추계학회 e-poster 전경 ◀



➔ 2010~2011 회기 임원 첫 모임
(2010.11.26)